다음 기사를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

"연대생 여러분, 질문하는 인재가 되세요"

염재호 고려대 총장, 연세대 특강
"지금 사회엔 문제 해결 능력 필요"
김용학 延大 총장은 5월 고대 강연



오종찬 기자

"여러분, 엄마 말 절대 듣지 마세요. 부모님은 20~30년 전 본인들이 학교 다니던 때를 생각합니다. 이제 자격증이나 대기업에 목매는 사람은 비전이 없습니다. 개척하고 도전하세요."

16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 연세대 학생 500여 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다. 사학 맞수인 고려대학교 염재호(62 · 사진) 총장이 100분 동안 '개척하는 지성'을 주제로 특강을 연 자리였다. 염 총장은 "지금 사회는 정답만 맞혀온 인재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돼라"고 조언했다.

"신입 사원 채용이 고용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가 뽑으라니 뽑는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가서 정년까지 있겠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세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학생들은 "초 · 중 · 고 12년 동안 획일적 교육을 받아왔는데, 이제 와서 '왜 질문하지 못하느냐'고 질책한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염총장은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 고생한 만큼 지금까지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면 한다"며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다음 단계로 발을 내디디라"고 했다.

연세대와 고려대 총장들이 상대 학교에서 교차 특강을 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8년 이기수 고려대 전 총장과 김한중 연세대 전 총장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이 고려대에서 특강을 열었다. 두 학교는 2015년 염 총장이, 작년 김 총장이 각 학교 총장직에 오르면서 활발한 교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진리 · 정의 · 자유를 향한 인문학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공동 강의를 개설하기도 했다.

성유진 기자

– 조선일보 2017년 11월 17일

이 기사를 3개 문장으로 요약해 보세요.



이 기사의 색칠된 부분을 또박또박 베껴 써 보세요.